

“물류정책촉 유명무실...조례 정비도 안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조호권(민주·북구 4) 의원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에서 “광주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서비스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지난 2004년 36억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2005년 60억원 ▲2006년 98억원 ▲2007년 196억원 ▲2008년 228억원(9월)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반면 시내버스 불편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해 200건에서 올해 9월30일까지 120건이 접수되는 가 하면 승·하차 거부 비율도 지난해 24.5%에서 올해는 31.5%로 증가하는 등 불편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우근(민주·북구 3)의원은 광주시가 1천7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중인 북부순환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국회예산처가 예비타당성을

광주시의회는 13일 제 175회 2차 정례회를 열어 광주시 건설교통국과 사회복지국, 기획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회 이후 여전한 서비스 문제, 비효율적인 노인일자리 박람회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불구 서비스 개선 여전히 미흡 노인 일자리박람회 채용인원 110명 그쳐 비효율적

근거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재신(민주·광산 2)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2004년 제정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관련 회의는 지난 2007년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그나마 상위원회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도 조례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행정자치위원회=손재홍(민주·동구 2) 의원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에서 광주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의 부실한 활동을 질타했다.

◇교육사회위원회=나종천(민주·남구 2)의원은 사회복지국에 대한 감사에서 “광주시가 올해 9월 1억2천600만원을 들여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지만 채용인원은 110명에 그쳤다”면서 “노인 1명 취업시키는데 114만5천원의 비용이 든 셈인데 보다 효과적인 취업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의 주요 정책과 효율적인 조정 및 심의를 위해 행정부시장과 실·국장 등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올해 10월까지 총 18건을 심의했지만 단 한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서면 심의로만 대체했다는 것이 손 의원 주장이다.

손 의원은 “18건의 안건 가운데 12건은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된 것인 만큼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측은 “조정위는 실·국장들이 참석해 시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지만 사정상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사회위원회=나종천(민주·남구 2)의원은 사회복지국에 대한 감사에서 “광주시가 올해 9월 1억2천600만원을 들여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지만 채용인원은 110명에 그쳤다”면서 “노인 1명 취업시키는데 114만5천원의 비용이 든 셈인데 보다 효과적인 취업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이규성 전 재경부장관(코람코 자산신탁 회장)이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6차 민주당정책포럼에 참석, 강연에 앞서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도시 이전기관, 부지 매입 본격화

나주에 위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들의 부지매입 계약을 위한 협의가 시작돼 혁신도시 조성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전남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할 17개 이전기관과 광주·전남도·나주시·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전관계기관 실무회의가 14일 경기 분당의 한국토지공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지난 3일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 토지공급계획 승인에 따른

이전기관 부지매입 계약 체결과 이전기관 임직원의 사택매입을 위한 주택조각 결성 등 현안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토공은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토지공급계획 승인 이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조성원가 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0일 토지공급 공고를 시행하는 대로 본격적인 토지분양에 나설 할 방침이다. 이전기관과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되면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관련 사업 전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佛·獨선 일부러 낙후지역서 유치한다는데...

정부 “F1대회 타당성 없다”에 지역 정치권 강력 반발

F1 대회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국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F1 특별법 제정은 이번 18대 국회 들어서도 상당한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지극히 F1 대회에 대한 지극히 편협한 시각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국회 국제경기지원 특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F1 대회가 공공성과 재무

타당성이 낮고 상업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과도한 국고 부담 등이 예상된다며 지원법 제정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F1 대회는 올림픽과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개최가 이뤄진다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산업 활성화 효과 및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공성에 대한 지적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KDI의 재무 타당성 조사 시점(2006년) 및 정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동안 스포츠 대회에 대한 재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정부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사 결과, F1 대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8천억원으로 비용 대비 2.46의 효과를 나타내 올림픽(2.35), 인천 아시안게임(1.90),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2.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접근성, 숙박 문제 등을 이유로 전남의 F1 대회 개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도 논리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F1 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일부러 낙후 지역에 대회장을 유치해다 수도권에서 3시간대의 접근성은 F1 대회 개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F1 대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전반적인 의지 부족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3일 열린 국회 국제경기특위에서 김영록 의원은 “F1 대회가 수도권에서 열렸다면 정부가 이렇게 반대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조영택 의원은 “F1 대회는 서남해안 관광래저기업도시 조성은 이끄는 선도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대정부 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용섭 ‘서남권 민간투자 조세 감면법’ 발의

목포, 무안 등 낙후된 서남권 발전을 위해 국내의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조세 감면 규정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은 13일 “서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에서 규정한 조세 감면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발전지역 발전 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의 사업 시행자 및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했다. 이 개정 법률안에는 국내의 입주 기업과 투자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 조치를 규정해 신발전지역의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 민간 자본 유치의 활성화와 낙후 지역의 조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채수상 선명학습판 / 예비고 1, 2, 3 / 1년 교육대 / 시골대 / 연고대 / 중문대 특목반 안내

11월 22일

광주 예비고1반

보양음료 숙취해소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여 드십니까?

062-267-7753

011-3612-8700

매드보다 확실한 신행예금!!

한시 모집

12개월 7.2% = 6.4%

7.1% = 6.3%

기간	6개월	9개월	12개월
월기예금	7.0%	7.1%	7.2%
기간	1년	2년	3년
월기예금	8.0%	8.1%	8.2%

광주분화은행